

러시아 **IIB** 은행, 유로본드 디폴트 발생 경과 및 전망

1. **IIB** 은행 유로본드 상환 디폴트 발생 주요 내용

□ **IIB** 은행, 7월초 만기 2억달러 상환 유로본드, 연체 발생

- 러시아 30대 대형은행 중 하나인 IIB(International Industrial Bank, 러시아 명칭 Mezhprombank)은행이 7월 6일, 유로본드 2억 유로(258백만 달러) 채무상환 연체(테크니컬 디폴트) 발생, 현재 채무조정 협의 중임.
- 이 유로본드는 지난 2007년 6월 27일, Calyon, Credit Suisse 등이 주관사로 발행(연리 9%)한 것이며, 금번 연체로 인해 2013년 만기 도래하는 유로본드 2억 달러도 cross-default 상태임.
- IIB은행은 2010년 1/4분기 말 현재 자산기준 러시아 28위 은행이며, 러시아 상원위원인 세르게이 푸가초프1)(Sergei Pugachyov)가 지배주주(81% 보유)임
- 러시아 은행의 유로본드 디폴트 발생은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후 최초로, 향후 동 은행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
□ 국제신용평가기관, **IIB** 신용등급 강등 조치

- Fitch : 달러화 및 루블화 장기신용등급 강등(CCC→C)

1) 푸가초프는 1997년부터 현 집권층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, 2001년부터 연방 상원위원으로 활동 중이며, IIB의 최대 지분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조선소 등 국가전략 기업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.

- Fitch사는 유로본드 디폴트 우려 증가, IIB의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채무연체 가능성 및 중앙은행과의 채무조정 문제 등 향후 채무상환 어려움 등 유동성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
 - Fitch사는 IIB에 대해 6월 9일자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 (Negative) 한데 이어, 6월 17일자로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음.
- S&P : 높은 유동성위험을 이유로 장단기 신용등급 강등(BB-/B→B-/C)
- Moody's : 장기신용등급 강등(B3→Caa2)
- 대외 신용평가기관 등의 잇따른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도 **IIB**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중

2. IIB은행의 유동성 위기 발생원인과 경과

□ 유동성 위기 발생원인

- 바슈네프트(**Bashneft**)의 중앙은행 내 **IIB** 자산 동결요청이 발단
 - 금년 5월, 러시아 석유기업 바슈네프트가 지난 1997년 IIB은행과 체결한 러시아정부 국채(35.3백만 달러) 신탁 위임계약과 관련, IIB은행 측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(반환요청) 및 채무이행 소송(약 66.5백만 달러)을 제기하고, 중앙은행에 예치된 IIB 자산 동결 요청
- 중앙은행, **IIB** 앞 무담보채무 연장 거부
 -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IIB 앞 기존 무담보채무(unsecured loan) 연장을 거절, 채무연체 발생
(6월말 현재 중앙은행 앞 무담보 채무 약 100억 루블 연체)
 - * 중앙은행 앞 IIB의 무담보 채무는 총 320억 루블(10억 5천만 달러)로, 7월~8월중 만기도래분이 약 190억 루블인 것으로 알려짐.

□ 주요 경과내용

○ 7월 5일, 중앙은행과 IIB는 조건부 채무조정 합의

- 바슈네프트가 6월 29일자로 중앙은행에 예치된 IIB 자산 동결요청을 취하해, 중앙은행과 IIB는 7월 5일, 2011년 1월 11일까지 6개월간 채무를 연장하는 조건부 채무조정에 합의함.²⁾

<조건부 채무조정 주요내용>

- ▶ 기존 무담보 채무를 담보채무로 전환
- ▶ 대주주(푸가초프) 소유 "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" 그룹 및 자회사 조선소인 "Severnaya Verf", "Baltiisky Zavod", "Iceberg" 등 계열기업을 담보로 제공
- ▶ 은행영업(면허 유지) 계속 허용 등

○ 현재 유로본드 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 협의 중

- 중앙은행과 채무조정 후 유로본드 채권자들과 기간연장 협의 예정 (만기 1년 연장 요청 중)이며, IIB 대주주의 비금융자산("Severnaya Verf", "Baltiisky Zavod", "Iceberg") 처분 후 20일내 유로본드 채무 상환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Cross default건인 2013년 만기인 2억 유로채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.

○ VTB와 6억 달러 규모 대출 협의 중

- 회계상 IIB의 매각자산 평가액은 약 890억 루블에 달하나, 시장에서 구매회사 평가액(약 230억 루블) 및 중앙은행 우선 상환액(약 320억 루블)을 감안할 경우, 실제 자산 매각 후 채무상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.

2)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해 ATM bank, 페트로프 은행에 대해 약 120억 루블의 채무조정을 한 바 있음.

- 향후 채무상환 자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, IIB의 실질 지배주주인 푸가초프 소유의 Tyva 소재 석탄광산 “Elegest coal deposit” 개발권³⁾ 등을 담보로 VTB(대외무역은행, 러시아 2위 은행)로부터 6억 달러 차입 협의 중이며, 최종 대출 여부 결정은 7월말로 예상되고 있음.

3. IIB은행 디폴트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

□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- IIB의 러시아 금융시장 내 참여도가 미미해 타 금융기관의 IIB 앞채권이 거의 없고, 일반 고객 비율도 낮아⁴⁾ 러시아 금융시장 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현지 전문가들은 IIB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아, 동 은행의 유로본드 디폴트가 선두권 금융기관의 차입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□ 러시아 대형은행들, 유로본드 발행 정상적으로 진행 중

-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는 지난 5월 로드쇼 후 7월 1일 10억달러 유로본드(만기 5년, 연 5.499%) 발행에 성공했음.
- 국책은행인 VEB(대외경제개발은행)도 7월 6일, 10억 달러 유로본드(10년 만기, 연 6.902%)에 성공했으며, 향후 약 300억달러 규모의 대외차입(만기 3~20년)을 계획 중임.
- 그 외 Gazprombank, Promsvyazbank, Transcreditbank 등도 현재 차입을 위한 로드쇼 진행 중임.

3) 동 대출 건이 성사되면 VTB의 관계사인 VTB-Capital이 개발권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.

4) IIB의 자회사 금융기관인 IIB-Plus(IIB 100소유)는 모회사인 IIB의 구조조정 확정시까지 고객예금 수납이 중지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4. IIB은행의 향후 전망

□ 주요 자산 등을 재원으로 채무재조정 진행

-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IIB 은행이 파산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대주주의 주요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 채무연장 및 VTB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채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임.⁵⁾ 그러나 유로본드 전액 채무변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중앙은행, 향후 타 은행과의 M&A 권유 고려

- 중앙은행은 대주주가 정부실세와의 친밀한 관계인 IIB 처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, 개별은행을 정부예산으로 구제하는 것은 중앙은행 현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, 향후 채무 구조조정 후 타 대형은행과의 M&A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은행면허 취소 가능성 상존

- IIB은행이 발표한 2010년 반기보고서 상 주요대출 자산 중 연체 대출금이 불과 1개월 만에 12억 루블(전체 포트폴리오의 0.8%)에서 1,659억 루블(전체 포트폴리오의 99.7%)로 크게 증가했음.
-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실제적인 채무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연체 증가에 따른 충당금 부족 등 자기자본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은행면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.

【모스크바사무소 제공】

5) 중앙은행과 VTB는 IIB은행 대주주인 푸가초프의 비금융자산인 조선소 등 관련 담보자산 매각을 통해 기존채무를 상환시킬 계획으로, 현재 자산평가 및 가격협상 진행 중임.